

경력단절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최 유 진

손 은 정[†]

계명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진로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으며, 경력단절 원인에 따라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변인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경상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거나 상담을 받기 위해 내방한 여성 1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배우자 지지는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를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진로탄력성은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를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경력단절원인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에서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 집단보다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집단이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변인에서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연구 및 실제에 주는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경력단절여성, 배우자 지지, 진로탄력성,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 본 원고는 최유진(2015)의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손은정,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사회대 212호, Tel : 053-580-5402, E-mail : ejsohn@kmu.ac.kr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13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9년 49.2%, 2011년 49.7%, 2013년 50.2%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25-29세에 71.8%로 가장 높으며 30-34세에 58.4%, 35-39세에 55.5%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45-49세에 68.0%로 다시 증가하는 M자형 분포의 양상을 보인다(통계청, 2015). 경제활동 참가율 조사에서 출산 및 육아기인 30대를 전후하여 참가율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M자형 분포를 보이는 것은 다수의 여성들이 취업을 하지만 결혼이나 출산 뒤 노동시장을 이탈한 후 일정 기간 재취업을 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김동숙, 이영민, 2011). 한국 여성 인력의 고학력화와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사회 여러 영역에서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는 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과 사회 구조는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류호상, 장인봉, 염영배, 2013).

대체적으로 기혼여성들은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재취업을 하기 까지 공백기를 가지게 된다. 여성들은 출산 및 육아에 있어 비교적 자유롭고 안정적인 시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새로운 직업탐색을 시도하게 되고, 진로를 선택하여 취업에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새롭게 받고자 하는 진로준비행동을 시작하게 된다. 진로준비행동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과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임은주, 2012; Kim, Ahn,

& Fouad, 2016). 진로발달의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벗어났던 여성들은 진로준비행동을 다시금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력단절여성이 새롭게 진로준비행동을 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경력단절여성들의 실태나 정책적인 방향, 직업정보인지도 그리고 인구통계학적인 관점에서 경력단절원인에 대한 조사들이 이루어져왔으며(류호상 등, 2013; 성경옥, 강혜영, 2015; 하애란, 2010),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을 하기 위한 진로준비행동과 연관된 환경적, 심리적 변인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한 이후 재취업을 하기 위해 시도하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힘으로써 경력 단절 여성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는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다.

기혼여성이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하는 일은 단순히 여성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 중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배우자 지지를 들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진로준비행동에는 대학생과는 달리 자신의 전공, 적성, 흥미 외에도 가족, 자녀양육, 가사, 경제적 수준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하애란, 2010). 특히 직장가정에서 겪게 되는 이중노동부담은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힘들게 한다(박효진, 은선경, 2012). 이러한 상황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이중노동부담을 감소시켜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배우자 지지는 여성의 진로에 대한 태도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있어서 배우자 지지는 여성에게 있어 다른 어떤 자원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 자원의 역할을 한다 (Beach, Martin, Blum, & Roman, 1993). Anderson과 White(1986)는 배우자의 지지적인 역할과 동조의식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았으며, Kaplan과 Cassel, Gore(1977)의 연구에서 배우자는 정서적 지지체계에서 중요한 바탕이 되므로 여성은 다른 어떠한 지지체계보다 배우자의 지지를 우선적으로 원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직업과 가족 간의 관계를 갈등관계로 보는 관점에 의하면(예: 가족의 요구나 문제가 일을 방해한다.) 배우자의 지지는 가족-일 간의 갈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Cinamon, 2009). 또한 직업과 가족이 서로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의 연구에서는(예: 가족의 삶은 일로부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다음 날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배우자의 지지가 가족-일 간의 향상을 도모하였다(Cinamon & Rich, 2010). 이와 같이 배우자 지지는 여성이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경력단절여성이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한 진로준비행동을 하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외적 요인인 배우자 지지와 함께 경력단절 여성의 개인 내적 자원으로서 재취업을 위한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는 진로탄력성을 들 수 있다(김수정, 송성화, 조민경, 2013; 전주연, 2014). 다양한 내적 자원들 가운데서도 진로탄력성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있어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진로탄력성(Career resilience)은 긍정

심리학의 대표적인 개념인 자아탄력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Noe, Noe, & Bachhuber, 1990). 자아탄력성이란 내적·외적 스트레스에 대한 융통성 있고 풍부한 적응능력으로, 인지적·사회적·개인적 영역에서의 문제해결이 가능한 융통성 있는 능력이다(Block & Block, 1980). 진로탄력성은 탄력성의 개념을 진로영역에 도입한 것이라 볼 수 있다(유현실, 2013; Bimrose & Hearne, 2012). 즉, 진로탄력성은 진로와 관련된 역경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역경을 적극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반응경향성과 관련이 있다(Bimrose & Hearne, 2012). 진로탄력성은 현재 직면한 역경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로 직업과 관련한 위기에 직면한 성인 집단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유현실, 2013; London, 1997). 따라서 경력단절이라는 현실적인 역경 상황을 경험한 여성들이 역경을 적극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재취업을 하기 위한 진로준비행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진로탄력성은 최근에 개념화 되어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진로탄력성 개념의 근간이 되는 자아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연구를 통해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의 관계를 예상해볼 수 있다. 고등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자아탄력성이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김수정, 송성화, 조민경, 201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은 진로준비행동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전주연, 2014).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볼 때 경력단절여성에게 있어서도 진로탄력성은 임신·출산·육아와 같은 장애물에 대해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장애의 극

복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진로준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전 연구들에 의하면 의미 있는 관계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진로와 관련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를 적응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혜수(2005)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부모, 교사, 친구와 같은 중요한 타인의 지지, 즉, 사회적 지지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정혜옥, 이옥형, 2011). 선행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대상으로부터의 지지는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력단절여성이 지각하는 배우자의 지지는 진로탄력성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낼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한편,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특성이 자기효능감이라는 진로에 대한 인지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신념이 진로 관련 행동 특성을 강화시킨다고 보았다(Lent, Brown, & Hackett, 1994). 즉, 자기효능감은 개인특성, 환경적 요인이라는 선행변인과 진로준비행동과 같은 결과 변인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이주연, 이기학, 2014). 따라서 사회인지진로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개인특성인 진로탄력성과 환경적 변인인 배우자의 지지는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신념이 진로준비행동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즉, 배우자 지지와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업이나 행동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자기효능감의 강화는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ndura, 1977; Betz & Hackett, 1981). Betz와 Hackett(1981)는 이러한 자기효능감 개념을 바탕으로 진로자기효능감을 개인의 진로 결정과 관련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이전 연구들을 통해 배우자 지지와 진로탄력성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자신의 진로 목표를 성취하고 진로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자기효능감이 높아졌으며(김효진, 장윤옥, 2011; 송현심, 홍혜영, 2010; 이상희, 2006), 한 개인이 중요하게 지각하는 타인의 지지는 진로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이정규, 2006; McArdle, Waters, Briscoe, & Hall, 2007). 사회적 지지가 진로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때, 경력단절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라 할 수 있는 배우자 지지는 진로목표를 성취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진로와 관련한 외적·내적 스트레스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개인의 특질은 진로탐색 과정에서의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진로탄력성 개념의 바탕이 되는 자아탄력성과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진로탄력성과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진로와 관

련되어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처행동을 나타낼 수 있게 하며, 이는 진로 선택과 결정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윤경희, 2013; Block & Block, 1980; Klohnen, 1996).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자아탄력성은 진로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유민, 2013; Masten & Coatsworth, 1998), 자아탄력성은 직접적으로 진로자기효능감을 예측하였다(윤경희, 2013; 이은정, 2012).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때 경력단절여성의 진로탄력성 또한 진로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의 진로와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노력으로 나타났다.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해 김선중(2005)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에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박숙경(2013)의 연구에서도 진로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den과 Aviram(1993)은 실직 기간이 2주 이상, 18주 미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은 구직행동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자기효능감의 증가가 구직행동을 강화하는 원인임을 밝혔다.

사회인지이론과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변인들 간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배우자 지지와 진로탄력성이 높아질수록 진로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며, 이러한 진로자기효능감의 향상은 진로준비행동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적 변인인 배우자 지지

와 내적 변인인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배우자 지지와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봄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배우자 지지와 진로탄력성이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를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완전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경쟁모형은 그림 2와 같이, 진로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배우자 지지 및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포함한 부분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추가적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의 단절 원인에 따라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변인 간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된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결혼, 출산, 자녀양육 등 비교적 여성의 생애주기적 원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우영, 2003; 김지경, 2004; 최형재, 2008). 많은 직장 여성들은 남성에게 비해 가사문제(결혼, 출산, 육아 등)로 인해 퇴직하게 되는 경우가 더 빈번하였고, 개인적 요인(소득, 일의 장래성, 적성, 근로환경 등) 또는 외부적 요인(직장의 파산, 정리해고, 계약만료, 전근 등)에 비해 가사문제로 퇴직 시 경력단절의 기간이 더 긴 경향이 있었다(김정호, 2013).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취업 여성들이 대부분 결혼이나 육아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며, 일이 가족을 향상시킨다고 인식할 때 직장을 그만 둘 확률이 낮아졌다(유성경, 김은석, 2015).

특히,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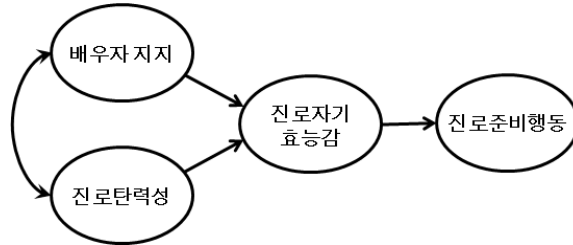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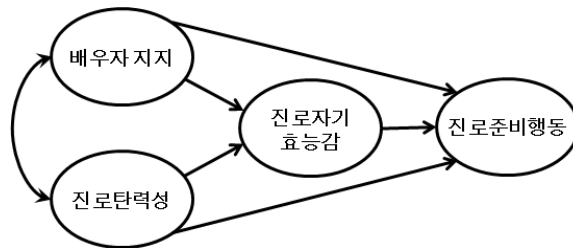


그림 2. 경쟁모형

이 높은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여성들은 결혼단계에서부터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으며(여성부, 2008), 결혼이 경력단절의 중요한 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주영, 2010). 그러나 결혼은 단기적인 단절의 계기로 작용하는 반면, 출산은 장기적인 경력단절의 계기로 작용하였다(민무숙, 오은진, 이시균, 2010). 이에 대해 박수미(2003)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출산 이후 가중되는 자녀양육 및 가사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라 보았다. 또한, 최형재(2008)의 연구에서는 기혼여성 중 유자녀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무자녀 기혼여성의 취업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양육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주요 원인이 되는 결혼 및 출산·육아에 따라 진로 관련 변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 및 출산·육아에 따라 배우자 지지, 진로탄력

성,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북·경남 지역에 소재한 4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거나, 상담을 받기 위해 센터를 내방한 여성 196명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실시하였다. 이 중 일부 문항에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미혼, 배우자의 부재 등과 같은 이유로 연구대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려되는 대상자에 해당되는 30부의 설문을 제외한 총 166개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

진로준비행동 척도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김봉환(1997)이 직접 제작한 척도 16문항을 바탕으로, 김형균(2003)이 인터넷 취업정보 사이트와 진로상담센터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2개의 질문을 추가하였다. 이후 이희정(2009)이 경력단절여성이 용이하게 설문에 응할 수 있도록 일부 문항을 적절한 단어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적절하도록 수정한 이희정(200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준비행동 척도는 정보수집활동 6문항, 도구준비활동 5문항, 실천적 노력 7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이며, 이희정(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전체 Cronbach's α 값은 .92로 나타났다.

배우자 지지 척도

배우자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문항에 황윤경(1996)이 수정하여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황윤경(1996)의 사회적 지지 척도는 남편을 비롯한 자녀, 친구, 시댁이나 친정의 가족들을 모두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배우자의 지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그들은 → 남편은).

사회적 지지 척도의 하위요인은 4개로 정서적 지지 7문항, 평가적 지지 6문항, 정보적 지지 6문항, 물질적 지지 6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 문항으로는 ‘남편은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 준다.’, ‘남편은 의논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응해준다.’, ‘남편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대체로 들어준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이며, 황윤경(1996)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척도의 전체 Cronbach's α 값은 .95였다. 본 연구에서 배우자 지지 척도의 전체 Cronbach's α 값은 .95으로 나타났다.

진로탄력성 척도

진로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는 김미경(2013)이 개발한 진로탄력성 척도이다. 진로탄력성 척도의 하위요인은 5개로 자기신뢰 6문항, 성취열망 6문항, 진로자립 6문항, 변화대처 6문항, 관계 활용 6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이며, 김미경(2013)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값은 .9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탄력성의 하위척도 중,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자기신뢰’에 해당하는 6문항을 제외한 24문항을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연구 분석에서 사용한 진로탄력성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90으로 나타났다.

진로자기효능감 척도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의 단축형인 CDMSES-SF의 25문항을 김미영(2005)이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다양성을 감안하기 위해 전공과 관련된

직접적인 질문을 제외하고 20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미영(2005)이 재구성하고, 이를 경력단절여성에게 적용시킨 이희정(200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은 5개로 자기평가 5문항, 목표설정 4문항, 문제해결 4문항, 직업정보 4문항, 미래계획 3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이며, 이희정(2009)의 연구에서 진로자기효능감 척도의 전체 Cronbach's α 값은 .90이었다. 본 연구에서 진로자기효능감 척도의 전체 Cronbach's α 값은 .93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사용하고, 각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AMOS 22.0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오류 및 결측치를 검토하는 작업을 거친 후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주요변인의 하위요인들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2.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먼저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완전매개모형의 연구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경쟁모형을 비교하여 최적 모형을 선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비교를 위해 카이제곱 검증을 이용한 모형 평가를 실시하였다. 모형 평가 실시 후 CFI, TLI, RMSEA를 사용하여 적합도를 판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지지,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

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기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력단절원인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위해서 주요 변인들 간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한 후 Fisher의 상관계수 차이검증을 하였으며, *t*-test를 통해 두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인들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배우자 지지, 진로탄력성, 진로준비행동, 진로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간 상관관계와 평균,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모형 분석

배우자 지지, 진로탄력성, 진로준비행동, 진로자기효능감의 측정변수와 잠재변수의 상관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2에 제시된 적합도가 나타났다. 측정 모형의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가 각각 CFI=.93, TLI=.91으로 나타났고,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098로 나타났다. 또한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변수의 모든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표 1. 주요 각 변인 하위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평균 및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정서적 지지																
2. 평가적 지지	.87**															
3. 정보적 지지	.81**	.78**														
4. 물질적 지지	.76**	.75**	.69**													
5. 성취열망	.34**	.42**	.47**	.37**												
6. 진로자립	.30**	.34**	.45**	.34**	.67**											
7. 변화대처	.23**	.24**	.30**	.31**	.38**	.49**										
8. 관계활용	.30**	.32**	.31**	.44**	.47**	.39**	.42**									
9. 자기평가	.46**	.54**	.50**	.50**	.52**	.59**	.47**	.37**								
10. 목표설정	.50**	.59**	.55**	.52**	.62**	.65**	.44**	.42**	.85**							
11. 문제해결	.41**	.49**	.46**	.46**	.64**	.54**	.40**	.44**	.66**	.75**						
12. 직업정보	.45**	.53**	.51**	.47**	.60**	.64**	.48**	.45**	.75**	.78**	.74**					
13. 미래계획	.43**	.48**	.46**	.43**	.50**	.61**	.47**	.34**	.69**	.70**	.64**	.71**				
14. 정보수집활동	.34**	.43**	.42**	.26**	.38**	.55**	.23**	.11	.51**	.54**	.39**	.45**	.55**			
15. 도구준비활동	.27**	.35**	.39**	.32**	.31**	.63**	.35**	.07	.53**	.52**	.37**	.49**	.53**	.69**		
16. 실천적 노력	.35**	.42**	.40**	.34**	.31**	.56**	.25**	.02	.48**	.50**	.32**	.43**	.45**	.68**	.79**	
평균	28.31	24.76	23.72	23.57	22.82	23.07	20.42	23.90	15.07	11.61	11.98	12.12	9.18	17.42	13.19	12.96
표준편차	4.41	3.77	3.92	3.11	3.76	4.31	3.46	3.37	2.60	2.39	1.87	2.13	1.36	3.01	3.19	2.91

** $p < .01$. 주. 1~4 배우자 지지, 5~8 진로탄력성, 9~13 진로자기효능감, 14~16 진로준비행동.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N=166	χ^2	df	CFI	TLI	RMSEA
측정모형	252.20	98	.93	.91	.098 (.08 ~ .11)

구조모형 분석

최적모형 검증

배우자 지지,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이 완전매개 하는지, 부분매개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하였다. 두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4에 제시되었다. 연구모형과 경쟁모

형을 비교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연구 모형은 $\chi^2(df=100)=256.33$ 이었으며,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93, TLI=.91로 나타났다. 또한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097로 보통의 적합도를 보였다. 경쟁모형은 $\chi^2(df=98)=252.20$ 이었으며,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93, TLI=.91으로 나타났다.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098로 경쟁모형 또한

표 3. 확인적 요인분석의 요인계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값	표준화 계수
배우자 지지				
물질적 지지	1.00			.81***
정보적 지지	1.33	.10	13.19	.86***
평가적 지지	1.38	.09	14.89	.93***
정서적 지지	1.63	.11	15.04	.93***
진로탄력성				
관계 활용	1.00			.51***
변화대처	1.17	.22	5.43	.58***
진로자립	2.17	.33	6.60	.86***
성취열망	1.68	.27	6.31	.77***
진로자기효능감				
미래계획	1.00			.79***
직업정보	1.72	.13	12.86	.87***
문제해결	1.40	.12	11.51	.80***
목표설정	2.06	.15	13.99	.93***
자기평가	2.13	.16	13.05	.88***
진로준비행동				
실천적 노력	1.00			.87***
도구준비활동	1.13	.08	14.47	.90***
정보수집활동	.92	.08	11.96	.78***

*** $p < .001$.

(N=166)

표 4.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χ^2	df	CFI	TLI	RMSEA	$\Delta\chi^2$
연구모형	256.33	100	.93	.91	.097 (.08~.11)	4.13
경쟁모형	252.20	98	.93	.91	.098 (.08~.11)	

보통의 적합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두 모형 모두 유사한 적합도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모형을 비교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유의도 .05수준에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이 서로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5.99 이상의 χ^2 차이가 발생해야 한다. 분석결과 두 모형의 차이는 $\Delta\chi^2(2)=4.13$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두 모형을 비교한 결과 χ^2 값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보다 간명한 모형인 연구모형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모형 경로분석

최종모형의 경로에서 모든 경로들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세부적인 경로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지지,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기법을 실시하였다. 세부적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검증결과 배우자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고,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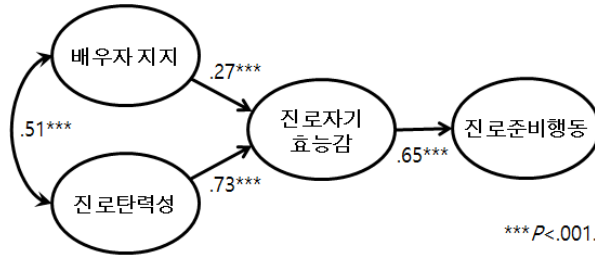


그림 3. 최종모형

표 5. 주요 변인들의 직접·간접 효과 및 총 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배우자 지지 → 진로자기효능감	.27	-	.27
배우자 지지 → 진로준비행동	-	.17 (.09~.26)	.17
진로탄력성 → 진로자기효능감	.73	-	.73
진로탄력성 → 진로준비행동	-	.47 (.37~.57)	.47
진로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65	-	.65

(N=166)

경력단절 원인에 따른 변인들 간의 관계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력단절여성들의 경력단절 원인으로 결혼(24.1%)과 출산, 육아(59%), 질병과 부상 같은 개인적 이유(7.2%), 정리해고 및 해고(0.6%), 기타(9%)로 나타났다. 여성이 아니더라도 경험할 수 있는 개인적 이유, 정리해고 및 해고와 같은 이유를 제외하고,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결혼 및 출산·육아를 경력단절 이유로 밝힌 여성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집단에 따른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평균, 표준편차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경력단절 원인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후, 두 집단의 상관계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Fisher의 상관계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 집단과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집단의 진로탄력성과 진

표 6. 경력단절 원인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상관계수와 평균 및 표준 편차

		배우자 지지	진로탄력성	진로자기 효능감	진로준비 행동
결혼 (N=40)	배우자 지지				
	진로탄력성	.47 **			
	진로자기효능감	.58 **	.72 **		
	진로준비행동	.54 **	.34 *	.63 **	
출산 , 육아 (N=98)	배우자 지지				
	진로탄력성	.37 **			
	진로자기효능감	.53 **	.76 **		
	진로준비행동	.45 **	.59 **	.57 **	

* $p < .05$, ** $p < .01$.

표 7. 경력단절 원인에 따른 주요 변인의 평균 비교

	배우자 지지		진로탄력성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M	SD	M	SD	M	SD	M	SD
결혼 (N = 40)	93.13	15.22	83.95	11.29	53.20	9.12	44.73	10.29
출산, 육아 (N = 98)	101.50	12.89	91.13	10.91	60.67	8.03	49.33	8.47
t	3.28**		3.48**		4.77***		2.72**	

** $p < .01$, *** $p < .001$.

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는 각각 $r=.34(p<.05)$, $r=.59(p<.01)$ 로 나타나, 결혼 집단이 출산·육아 집단에 비해 상관관계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력단절 원인에 따른 주요 변인의 점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인에서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 집단보다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집단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여성의 배우자 지지,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배우자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 진로자기효능감이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며, 진로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면서 진로준비행동도 적극적으로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의 지지가 가족·일 간의 갈등을 감소시키고 직장에서의 일을 향상시키는 요인임을 밝힌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며(Cinamon, 2009; Cinamon & Rich, 2010),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김효진, 장윤옥, 2011; 송현심, 홍혜영, 2010; McArdle et al., 2007).

둘째,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 진로자기효능감이 완전 매개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 진로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며, 결국 진로준비행동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이나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었던 결과나(김미경, 2013; 김수정, 송성화, 조민경, 2013; 전주연, 2014), 자아탄력성이 자기효능감을 유의하게 예측했던 결과들과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윤경희, 2013; 이유민, 2013, Masten & Coatsworth, 1998).

셋째, 경력단절 원인에 따른 주요 변인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 집단 보다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여성 집단에서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상관계수의 차이 검증에서는 결혼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집단보다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집단이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계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경우 비교적 자발적인 선택의 문제로 볼 수 있는 반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경우 현실적인 환경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태로 볼 수 있다(장서영, 2008; Jang & Merriam, 2004). 따라서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진로준비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에 의한 경우보다 더 많은 진로탄력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거나 상담을 위해 센터를 내방한 사람들임을 고려할 때, 결혼에 의한 단절보다 출산 및 육아로 인해 단절을 경험한 여

성들이 취업준비행동을 시작하는 경우 더 많은 배우자 지지와 진로탄력성, 그리고 진로자기효능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는 출산 및 육아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에게 더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실제적인 지지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가 주는 의의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함께 결혼 및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배우자 지지는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에 대한 효능감을 증가시켜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편의 정서적, 실제적인 지지가 일과 가족 사이의 갈등에 대처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Rosenbaum, Cohen, 1999), 기혼여성이 전통적인 성역할과 직장인의 역할 사이에서 진로 지속과 경력 단절을 결정할 때 남편의 지지를 의미 있게 경험한다는 것과 일치한다(최윤정, 김계현, 2007). 이전의 경력단절여성의 지지자원에 관해 다룬 연구들은 주로 가족, 친구, 배우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인 사회적 지지에 대해 주된 관심이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히 기혼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정서적 지지 자원이 되는 배우자의 지지가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Anderson & White, 1986; Kaplan et al., 1977).

이러한 결과는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배우자의 지지와 수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배우

자의 일반적인 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성의 취업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생활 및 역할의 변화에 대한 배우자의 태도와 취업으로 인한 변화 과정에서 배우자의 실제적인 지지에 대해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준비행동 및 취업 후 역할의 변화에 대한 배우자의 수용과 지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는 변인임이 입증된 것과 일맥상통한다(김수정, 송성화, 조민경, 2013; 김지연, 이기학, 2014). 이를 통해 경력단절이라는 진로와 관련된 역경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개인의 내적 능력인 진로탄력성이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준비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총 효과 분석 결과 배우자 지지보다는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단절여성이 진로준비행동을 함에 있어 배우자 지지와 같은 사회적·환경적 지지도 중요하지만 진로탄력성과 같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자원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상담 장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인의 진로탄력성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이 진로에 대한 개인의 탄력성을 증진시키도록 도움으로써 진로준비행동을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인 내

적 자원으로 진로탄력성을 포함시켰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 내적 자원으로 낙관성, 강인함과 같은 긍정적 성격특성이나 소명의식과 같은 직업에 대한 태도가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배우자의 지지나 진로탄력성은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를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특성이 자기효능감이라는 진로에 대한 인지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신념이 진로 관련 행동 특성을 강화시킨다고 본 사회인지이론을 지지하고 있다(Lent et al., 1994). 특히 부분 매개 모형보다 완전 매개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배우자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진로자기효능감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으며(김건희, 황은희, 2016; 조명실, 최경숙, 2007), 진로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힌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송현심, 홍혜영, 2010; 황지영, 박재황, 2015). 즉, 개인 특성인 진로탄력성과 환경적 변인인 배우자의 지지는 진로자기효능감이라는 진로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신념이 진로준비행동을 강화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 개입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환경적 자원인 배우자의 지지를 높이거나 개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내적 자원인 진로탄력성을 상승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보다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진로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촉진하는 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인지적 사고의 변화를 촉진하는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진로 목표를 성취하고 진로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킨다면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준비행동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 대상을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30세부터, 경제활동참가율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 45세까지의 경력단절여성으로 제한하였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의 경우 연구 자료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설문조사 참여자를 통해 26~65세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구직을 위한 진로준비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OECD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경우에는 15~65세를 기준으로 하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여 폭넓은 범위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지지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력단절여성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경력단절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던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모 또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이 되었지만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자료가 제외되었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족구조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연구결과를 적용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양육을 수반하는 여성을 기준으로 볼 때 주재선(2007)의 여성통계연보에 따르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일반

적인 가족 형태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혼모와 미혼모의 증가로 인해 편모가정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가족구조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배우자 지지 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원이 지지자 원으로서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준비행동의 증가가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이 실제 취업 성공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취업 이후 직장 생활을 지속하는 기간이나 직업만족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건희, 황은희 (2016).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비판적사고 성향,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2), 436-445.

김동숙, 이영민 (2011).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 인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HRD연구, 6(4), 21-39.

김미경 (2013). 전문대학생 진로탄력성 척도개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미영 (2005). 여성실직자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직업포부 수준과의 관계. 한국기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

비행동의 발달 및 2차원적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선중 (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수정, 송성화, 조민경 (2013).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진로교육연구, 26(4), 85-107.

김우영 (2003).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여성 취업률의 동태적 분석. 노동정책연구, 3(1), 67-101.

김정호 (2013). 여성 경력단절의 원인과 임금효과. 사회경제평론, 41, 97-127.

김주영 (2010). 여성의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재진입. 노동리뷰, 8, 36-50.

김지경 (2004). 젊은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연속성 결정요인. 대학가정학회지, 42(3), 91-104.

김지연, 이기학 (2014). 자아탄력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7(3), 1-25.

김형균 (2003).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성별, 학년별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효진, 장윤옥 (2011).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8(7), 1-32.

류호상, 장인봉, 염영배 (2013).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태분석과 정책함의. 한국정책연구, 13(1), 51-75.

민무숙, 오은진, 이시균 (2010).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지원 서비스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수미 (2003). 한국여성들의 두 번째 노동시

- 장 이행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여성학*, 19(1), 43-80.
- 박숙경 (2013). 여대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효진, 은선경 (2012). 경력단절 경험을 가진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일-가족양립 정책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7(1), 5-29.
- 성경옥, 강혜영 (2015).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정보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보격차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4), 443-467.
- 송현심, 홍혜영 (2010).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3), 1325-1350.
- 여성부 (2008).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욕구조사연구. 여성가족부.
- 유성경, 김은석 (2015). 맞벌이 여성 근로자의 일자리 중단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 비연속시간 생존분석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4), 551-569.
- 유현실 (2013). 진로탄력성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성인 진로상담에 대한 시사점. *상담학연구*, 14(1), 423-439.
- 윤경희 (2013).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및 긍정적 정서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 (2006). 진로발달에서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의 역할: 사회인지 진로이론(SCCT)과 사회인지 이론의 검증. *상담학연구*, 7(4), 1123-1135.
- 이유민 (2013).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정 (2012).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 긍정정서와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규 (2006).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고3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0(3), 571-586.
- 이주연, 이기학 (2014).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사회인지진로이론적 관점에서. *진로교육연구*, 27(1), 65-81.
- 이희정 (2009).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 지각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은주 (2012).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 지지 인식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서영 (2008).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여성연구*, 74(1), 79-104.
- 전주연 (2014).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옥, 이옥형 (2011). 초임 유아교사와 경력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1(3), 31-53.

- 조명실, 최경숙 (2007).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3), 1085-1099.
- 조혜수 (2005).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부모 애착,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학생생활상담*, 23, 57-81.
- 주재선 (2007).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윤정, 김계현 (2007). 고학력 기혼여성의 진로단절 위기 경험에 대한 개념도(Concept Mapping) 연구 - 진로지속 여성과 중단여성 간의 비교 -. *상담학연구*, 8(3), 1031-1045.
- 최형재 (2008). 자녀교육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한국노동연구원.
- 통계청 (2015).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2에서 2015, 3, 22 인출.
- 하애란 (2010). 여성고용지원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 여성의 경력단절요인과 재취업욕구를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19, 471-508.
- 황윤경 (1996). 청소년 또래집단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성숙도와의 관계 -서울시 중학교 인문계 고교 중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지영, 박재황 (2015).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직업교육연구*, 34(5), 73-101.
- Anderson, J. Z., & White, G. D. (1986).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interaction and relationship patterns in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nuclear families and stepfamilies. *Family Process*, 25(3), 407-422.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each, S. R., Martin, J. K., Blum, T. C., & Roman, P. M. (1993). Effects of marital and co-worker relationships on negative affect: Testing the central role of marriag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1(4), 313-323.
- Betz, N. E., & Hackett, G. (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5), 399-410.
- Bimrose, J., & Hearne, L. (2012). Resilience and career adaptability: Qualitative studies of adult career counsel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1(3), 338-344.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pp. 39-101). Hillsdale, NJ: Erlbaum.
- Cinamon R. G. (2009). Role salience, social support, and work-family conflict among Jewish and Arab female teachers in Israel.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6(2), 139-158.
- Cinamon R. G., & Rich, Y. (2010). Work family relations: Antecedents and outcom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8(1), 59-70.
- Eden, D., & Aviram, A. (1993). Self-efficacy training to speed reemployment: Helping people to help themselv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3), 352-360.

- Jang, S. Y., & Merriam, S. (2004). Korean culture and the reentry motivations of university-graduated women. *Adult Education Quarterly*, 54(4), 273-290.
- Kaplan, B. H., Cassel, J. C., & Gore, S. (1977). Social support and health. *Medical Care*, 15(5), 47-58.
- Kim, S., Ahn, T., & Fouad, N. (2016). Family influence on Korean students' career decisions: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4(3), 513-526.
- Klohn, E.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1079.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London, M. (1997). Overcoming career barriers: A model of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es for realistic appraisal and constructive cop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4(1), 25-38.
- Masten, A. S., & Coatsworth, J. D. (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53(2), 205-220.
- McArdle, S., Waters, L., Briscoe, J. P., & Hall, D. T. (2007). Employability during unemployment: Adaptability, career identity and human and social capita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1(2), 247-264.
- Noe, R., Noe, A., & Bachhuber, J. A. (1990). An investigation of the correlates of career motiv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7(3), 340-356.
- Rosenbaum, M., & Cohen, E. (1999). Equalitarian marriages, spousal support, resourcefulnes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Israeli working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1), 102-113.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1차원고접수 : 2016. 10. 10.

심사통과접수 : 2016. 12. 20.

최종원고접수 : 2016. 12. 24.

**The effects of spouse support and career resili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career-interrupted women:
The mediating role of career self-efficacy**

You Jin Choi

Eunjung Son

Kei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pouse support and the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career-interrupted women, and to examine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causes of career interruption. One hundred sixty six women, who had taken courses or had come for advice at the Woman Vocation Organizations of Kyongsang provinc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spouse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diated by career self-efficacy.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diated by career self-efficacy. Third, career-interrupted women for child-birth and nurture had higher scores in all the variables and higher correlation between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an career-interrupted women for marriage.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about career-interrupted women are discussed.

Key words : career-interrupted women, spouse support, career resilience, career self-efficacy